

재미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시카고지역의 재혼자를 대상으로 -

김 효 순⁺

(가족문제연구소)

엄 명 용⁺⁺

(성균관대학교)

박 미 정

(성균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 재혼교포부부들의 이혼과 재혼과정 및 재혼생활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 7인, 남성 2인, 총 9명의 재혼한 교포들을 소개받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재혼한 한인교포부부들의 재혼생활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모두 17개의 하위범주와 이혼사유, 재혼: 새로운 삶의 선택, 재혼생활의 갈등상황, 대처자원, 재혼생활의 안정화 단계 등 5개의 핵심범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들을 바탕으로 재미한인 교포 재혼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재혼생활, 질적 사례연구, 한인재미교포

1. 서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미국 내 한인교포들의 수는 1970년대에 70,000명에서 1992년에는 799,000명으

* 본 논문은 2008년도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e-mail:myum@skku.edu)

로, 2007년에는 2,016,000명으로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US. Bureau of the Census, 2008). 재미한 인교포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이며, 재미 한인집단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시아인 집단이 되었다. 재미한인교포 중 27%만이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 외 출생교포 중 56%는 1980년대 이후에 이민 온 것으로 되어 있어(US. Bureau of the Census, 2008), 과반수의 재미교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일정기간 성장한 후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 후 문화적응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Kim, Han, Shin, Kim and Lee, 2005), 이는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생활상의 변화를 겪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신영, 2002; 한정애, 2006). 즉, 이민 후 부인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존중, 인정, 남편의 가사 노동 공유 등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부관계는 미국의 평등주의적 결혼과 개인주의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간 성역할의 변화를 겪게 된다(이선미, 2006). 반면에 한국 가족의 특징인 위계질서의 존중, 남성 우위 사상, 애정표현의 자제, 그리고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법 등은 이민 후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남편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하고 부인의 태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경제적 활동과 더불어 달라진 부인의 태도는 남편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더욱 존경을 요구하게 되고 권위적이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우울증, 폭음, 가정폭력, 가출,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가정파탄과 이혼을 야기하게 된다(신혜섭, 1995; Cho, 2008). 따라서 재미한인의 이혼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혼율보다 높다(신혜섭, 1996; 정정숙, 2009; Kim and Sung, 2000). 실제 미주한인가정상담소의 상담자료(2008)에 의하면 한인교포부부의 이혼상담비율이 1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교포부부들의 가족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와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져 재미한인교포의 재혼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혼·재혼율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수 십 년간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여, 1986년의 경우, 이혼한 남성의 79%와 이혼한 여성의 75%가 재혼하였으며, 그들의 67%가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였다. 1991년에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20% 이상이 재혼가족이었다(Bray and Berger, 1993). 특히 초혼의 경우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70%, 세 번째 결혼일 경우에 이혼율이 80%~9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되어(Bumpass and Sweet, 1995), 재혼가족이 가족해체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혼의 본질적 취약성은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재미한인교포가족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어서 사회복지계의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서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이름 없는 가족들(the families with no name)'¹⁾이라 불리는 재혼가족

1) Cherlin(1987)이 재혼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혼가족을 불완전한 제도라고 명명했듯이 Ganong과 Coleman(2000)은 아직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름 없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김종숙, 2002, 재인용).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중숙 역, 2002).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달리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전혼배우자와 재혼가족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들에 직면한다(김연옥, 2007; 김효순, 2007; 임춘희, 2006; Coleman, Ganong, and Fine, 2002; Adler-Baeder and Higginbotham, 2004; Gosselin and David, 2007; Gonzales, 2009). 즉, 재혼가족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새로운 역할과 규칙 및 전통을 만들어 가는 가족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족 간의 갈등이 초혼가족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규범의 부재, 이혼을 문제 해결책으로 보려는 경향 등으로 재혼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Coleman et al., 2002).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은 수년 간 가족관계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이 더 많아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며 불만족과 좌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등 가족구조가 취약해진다고 보고된다(김효순, 2007; Felker-Thayer, Stoll, and Arnauttt, 2002; Dunn, O'Connor, and Cheng, 2005; Gosselin et al., 2007).

지금까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재혼가족은 높은 수준의 가족갈등과 재해체라는 취약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 한인교포들의 재혼생활에 관한 학계의 보고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금까지 재미교포와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적응, 한인노인의 소외,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원영희, 2005), 그리고 재미교포들의 부부간의 폭력 및 정신건강 등과 같은 한인가족과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연구들(박태영, 1998; 옥선화, 2000; Cho, 2008)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미한인교포 가족에 관한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분포나 전반적인 적응 양상(이신영, 2002; Kim & Hurh, 1990), 이민 후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나 부부폭력, 가족 간의 갈등(신혜섭, 1996; 박태영, 1998; 옥선화, 2000; Kim & Sung, 2000; Cho, 20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두 번째 연구의 필요성은 서구의 재혼가족연구가 대부분 유럽계 백인가족, 아프리카계 흑인가족 및 히스패닉계 가족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진행되어(Coleman et al., 2002), 한인교포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재미한인교포 남성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갖고 있어 부부문제를 유발하며, 한인교포의 이혼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신혜섭, 1996; Kim and Sung, 2000). 따라서 재혼율도 높을 것으로 여겨지나 미국 내 한인교포들의 이혼 후 재혼생활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시도하고자 하는 이혼과 재혼과정 및 재혼생활에 관한 탐색적 차원의 연구가 비록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재미한인교포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이라는 학문적 의의를 지닐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 간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재미한인 재혼교포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재혼생활에 관한 주관적 경험을 탐색·고찰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재혼한 교포들의 재이혼에 따른 가

족해체를 예방하고 새로이 구조화된 한 가족(we-ness)으로서 재혼가족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문헌검토

1) 문화적응과 재미한인교포사회의 특성

문화적응이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상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집단 쌍방 모두의 고유 문화패턴에 변화가 오는 현상이다(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타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은 개인이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민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에 적응하고자 시도하며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Ward and Kenny, 1999).

미국사회에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대량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이후부터였다. 소수이민자집단은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 역할변화, 정체성의 위기, 인종차별에 따른 어려움 등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Berry, 1998, Kim et al., 2005). 이민 1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재미한인교포는 언어장벽, 미국에서의 교육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차별, 그리고 직업지위의 하락 등을 경험한다(이선미, 2006).

재미한인교포부부의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가계의 계승과 전달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에서는 부자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었으나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부부관계 질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전체 가족원의 삶의 안정성도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재미한인교포 가족의 경우 이민이라는 지리·물리적 전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관계의 특성이 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옥선화, 2000). 신혜섭(1995)에 따르면 이민초기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역할의 갈등에 미국사회의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영향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부부관계의 주요 문제로 등장한다고 한다. 특히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데 비해 여성은 미국의 문화나 가치관에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부부간 가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부사이의 문제는 미국사회에 쉽게 노출되는데 YWCA의 부부문제에 관한 전화상담통화(2004)에 따르면 가정폭력, 이혼, 외도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재미한인교포의 가정폭력문제는 아시아계 중 한인이 가장 심하며, 이혼율은 일본계, 중국계, 필리핀계보다 높다. 따라서 재미한인교포의 이혼이 한국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며(민병갑, 1991), 초혼보다는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고, 재혼의 성공이 초혼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이혼율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기 자녀와 재혼가족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발달과업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응집성을 필요로 하는 재혼가족의 요구와 상충하면서 재혼가족의 청소년이나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즉, 재혼가족 내에서 가족단위의 첫 번째 과업은 가족원간의 응집인 반면, 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독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청소년 간 마찰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재혼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 선행연구(김효순, 2007; Felker-Thayer, Stoll, and Arnauttt, 2002; Dunn, O'Connor, and Cheng, 2005)에 의하면 청소년을 둔 재혼가족은 청소년기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더 나이든 자녀를 둔 재혼가족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혼가족에서 적응을 잘 하던 어린 자녀도 청소년기가 되면 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아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Walsh, 1992), 자녀의 발달단계 상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계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연구결과들(Rodgers and Rose, 2002; Stoll, Arnaut, Fromme, Felker-Thayer, 2005; Gosselin, and David, 2007)에 의하면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비이혼가족의 자녀들보다 높은 수치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공격성, 행동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들을 보이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재혼생활과 재미한인교포

재혼가족에게는 유연한 의사소통(Golish, 2003), 상호존중, 상호 협동, 문제해결능력(Knaub, Hanna, and Stinnett, 1984), 및 평등한 역할수행(Schults, Schults, and Olson, 1990) 등의 가족장점 요인이 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선행연구에 의해 '불완전한 제도'로 불리는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전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Coleman, et al., 2002; Adler-Baeder et al., 2004; Gosselin et al., 2007; Gonzales, 2009).

재혼가족은 끊임없이 발달, 변화하는 체계로서 여러 발달과업들을 완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와 갈등을 조정, 해결해 나가면서 적응한다는 점에서는 초혼가족과 동일하다. 재혼가족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 형태들(규칙, 경계,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새 부모와 새 자녀 모두는 재혼가족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 형태들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갈 여유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가족 가치와 일상의 의례가 서로 다른 가족환경에서 살아온 새 부모들은 배우자와 파트너십을 경험하면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에게 자녀양육문제는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Crosbie-Burnett et al., 1994; Rodgers and Rose, 2002; Stoll et al., 2005; Gosselin et al., 2007).

재미한인교포의 결혼실태 보고서(정정숙, 2009)에 의하면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아시아계 이혼율이 두 배가 되었는데, 교포사회의 이혼율은 한국의 이혼율에 비해 한인남성은 3배, 한인여성은 5배가 높았다. 대다수 한인교포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재정문제, 시댁과의 문제, 외도, 폭력, 알코올 남용, 성적 문제 순으로 드러났다(정정숙, 2009).

재미한인교포들의 재혼과 관련해서는 영주권, 시민권을 노린 정략결혼(재혼) 등이 두 당사자 간에 은밀히 진행되기도 해 재혼이 삼혼이 되고 삼혼이 사혼되는 과정에서 정략결혼의 희생양이 되는 재혼 당사자 사례들도 있어 이러한 예들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한 교포사회 내 불신을 조장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ww.kukinews.com, 2004.03.09). 바쁘고 외로운 이민생활에서 당사자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기는 여러 한계가 있으며 이혼 후 재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생활의 여러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비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내용과 질적 사례연구

선행연구들(Pasley, Koch, & Ihingrt-Tallman, 1993; Felker-Thayer, et al., 2002)을 토대로 재혼가족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질문들이 작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을 포함한 본 연구의 질문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혼과 재혼과정은 어떠하였는가? ② 재혼가족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은 어떠한 것들인가? ③ 재혼생활의 긍정적인 요인이나 장점, 자원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 밖에 재혼한 교포들의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사회적 연계망,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관한 부수적인 질문들이 추가되었다.²⁾

본 연구는 심층적 개인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미한인교포들의 재혼생활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첫째,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과 가족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의 유형을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의미, 해석 및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Weber, 1947). 둘째,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 또는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을 때 유용하다(Guba and Lincoln, 1981)는 점 때문이다.

2) 질문 과정에서 계부모, 계자녀라는 용어 대신에 재혼가족부모, 새부모, 새어머니, 새아버지, 재혼가족 자녀, 새자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전혼자녀, 재혼배우자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었다.

2)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지켜야 할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는 재혼한지 6개월이 넘었고, 현재 가족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60세가 넘지 않았고,³⁾ 청소년기(미국의 중·고등학생) 자녀(전혼 자녀)를 1인 이상 포함한 유자녀 교포 재혼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미교포라 함은 모국인 한국을 떠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질적 사례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이 활용되었다. 의도적 표집방법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으로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모집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한인지역신문의 광고, 지역의 한인 모임, 한인서비스기관, 한인교회 목회자 접촉 등의 활동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총 9인의 연구참여자들이 확보되었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접이 실시되었다.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근무지나 집 근처 카페 등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면접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심층면접이 비구조적 형태의 열린 면접이었으므로 면접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례 따라 3-4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면접 시, 본 연구자는 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IRB에서 요구하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피면접자가 서명한 후 한 부씩 보관하였다. 이 동의서는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의 학문적 활용, 연구참여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면접거부권, 면접의 녹음기 사용허가, 면접 후 녹취록 검토기회부여, 면접 자료의 안전한 보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연구자가 준비해간 소정의 현금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양해 하에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와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다양한 내용의 의도와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학 전문가와 동료들로부터 분석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함께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7인, 남성 2인으로 총 9인이었으며 법적으로 모두 재혼한 상태였다.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 사이였고 한국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 때(사례 3, 사례 4, 사례5, 사례 7) 혹은 결혼 후 전남편과 함께(사례, 1, 사례2, 사례 6, 사례 8, 사례 9) 이민 왔

3)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60세로 제한한 것은 60세 이상이 되면 노년기의 재혼이 되며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전혼자녀로 인한 마찰이나 갈등이 비교적 적은 반면, 성인기의 재혼은 새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새부모-새자녀관계가 재혼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으며 모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많았고, 재혼기간은 2년에서 7년 사이로 2년 미만의 재혼기간은 없었다. 교포사회의 특성 상 여성들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경제수준은 다수가 스스로를 '중'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 후 여성들이 자녀양육(custody)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육비를 따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혼배우자와는 이혼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례 2와 사례 9처럼 전혼자녀들은 그들의 친부모들과 만남을 이어 가는 사례는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재혼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종교	이혼사유	이혼기간
사례 1	여	47세	네일 아티스트	고졸	중	기독교	경제적 무능	2년
사례 2	여	45세	부동산중개업	대학원 중퇴	하	기독교	경제적 무능	2년
사례 3	여	51세	남편과 사업	고졸	중	종교 없음	동성애	3년
사례 4	여	55세	주부	고졸	중	기독교	외도	2년
사례 5	남	52세	자동차회사에 근무	전문대졸	중	기독교	경제적 무능	2년
사례 6	남	47세	사업	고졸	중	기독교	이민 부적응 문제, 성격차	3년
사례 7	여	40	은행원	대졸	상	기독교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3년
사례 8	여	53	사업	고졸	중	천주교	경제적 무능	5년
사례 9	여	49	주부	대졸	상	기독교	외도	3년

* 표에 나타난 연령과 기간 등은 모두 면접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 2> 연구참여자의 재혼관련 특성

사례	재혼 기간	재혼유형	자녀관계	가족유형
사례 1	7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재혼	전혼에서 아들 하나, 새 자녀 아들 둘	복합재혼가족
사례 2	6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재혼	전혼에서 딸 둘, 새 자녀 딸 하나	복합재혼가족
사례 3	5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초혼	전혼에서 아들 둘	단순재혼가족
사례 4	7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재혼	전혼에서 딸 둘, 새 자녀 아들 하나, 딸 하나	복합재혼가족
사례 5	2년	이혼 후 재혼, 부인 재혼	전혼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새 자녀 아들 하나, 딸 하나	복합재혼가족
사례 6	3년	이혼 후 재혼, 부인 재혼	전혼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새자녀 딸 하나	복합재혼가족
사례 7	3년	이혼 후 재혼, 남편은 초혼	전혼에서 딸 둘, 재혼해서 아들 하나	단순재혼가족
사례 8	5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재혼	전혼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새자녀 아들 하나	복합재혼가족
사례 9	7년	이혼 후 재혼, 남편 재혼	전혼에서 아들 하나, 새자녀 딸 하나	복합재혼가족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및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Padgett, 1998).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관찰, 심층면접, 문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의 확인가능성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연구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들 통하여 자신이 연구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확보된다. 이러한 연구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선이해를 미리 제시하고, 동료연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의 편향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향성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성해 갔다.

4. 사례분석결과

녹취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근거이론법에서 제시한 개방적 부호화를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개방적 부호화란 연구현상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으로써, 현상을 단계별로 범주화하여 명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비수량적 자료분석의 범주화와 조직화를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 NVivo 8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면접자의 각 사고단위에 기초하여 자료를 범주화하고, 사고단위 간 관련성을 보는 작업을 반복하여 녹취록 전체를 조작하고 구조화하였다.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한인교포들의 재혼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사례의 진행과정을 일정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연대기적 구성방법에 따라 이혼과 재혼 사유 및 재혼의 시작부터 재혼생활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를 통하여 재혼한 한인교포부부들의 재혼생활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모두 17개의 하위 범주와 5개의 핵심범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들을 다음의 <표 3>에 정리하였다.

4) 질적 연구에서는 전이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나 연구 방법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리방법이 문제로 대두되어 그 대안으로 컴퓨터를 응용한 질적 자료 분석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박중원, 2009).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질적 자료 분석은 자료분석의 정교성, 분석과정의 신축성 및 수정가능성, 자료의 통합성, 자료에 대한 통찰성 및 감사 기능성의 향상, 자료전파 및 분석과정의 공유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연구의 신뢰도를 담보해줄 수 있다(이명선, 2000).

〈표 3〉 핵심범주와 하위범주

핵심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이혼 사유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갈등	게으르고 술중독자였음. 생활능력이 없음. 돈 못 번다고 비난과 무시
	외도	경제력보다 신뢰가 무너짐. 다른 여자들이 너무 많음.
	음주와 가정폭력	술 좋아하고 드링크 할 때 화를 냄. 술 먹고 의자를 던짐.
재혼: 새로운 삶의 선택	외로워서	단조로운 미국생활. 서로 외로워서 급속도로 가까워짐.
	정서적·낭만적 감정의 추구	서로 대화 나눌 상대 필요.
	경제적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 고생 안 시킨다고 함.
	주위의 시선	주위에서 혼자 사는 것을 이상하게 봄.
재혼 생활의 갈등 상황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	사랑해서 재혼하는 것 아님.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살아가면서 의심.
	불명료한 가족경계 친밀감 부족	엄마라는 호칭. 스스로 아빠라고 말하기 힘들. 엄마 노릇하기가 힘들.
	삼각관계	자녀들이 나와 남편하고 친한 것을 못 봄. 질투함.
	충성심 갈등	엄마가 불쌍하다. 새엄마가 밉다..어린 시절의 기억.
	새부모로서 권위·권한의 부재	새 자녀가 욕을 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함.
	교포사회의 편견	누구 권사는 재혼했다.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음.
대처 자원	남편에 대한 신뢰·연대·배우자 지지	남편 역할이 큼. 살면서 서로 의지.
	종교생활	교회로 인도. 신앙생활로 고통 극복함.
안정화 단계	가족애(we-ness)의식의 공유	가족의 모습.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새엄마·새아빠라는 역할 모델되기	엄마의 좋은 측면을 보여주기. 좋은 엄마가 되어주자. 아빠역할을 해줌.

1) 이혼사유

연구참여자들의 이혼사유는 경제적 무능력, 알코올중독, 성적 취향과 외도, 음주와 가정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한인교포의 경우 경제적 무능력은 이민 직후에 주로 남성들이 미국 이민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례 1과 사례 8의 경우 여성들은 이혼 후 자녀들과 미국에 남아 미국생활에 적응해나간 반면 남자들은 정착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이다. 이민생활의 적응과정에서는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에 따른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및 외도 등의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이혼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고 있었는데 이는 교포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문애리, 1995; 이선미, 2006)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사례 4와 사례 8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인교포들은 이혼 후 외로움은 컸지만 전혼배우자와는 거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한경혜, 1933; Berman, 1988)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그에 따른 갈등

미국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한인들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나 연평균 가구소득(\$33,909: 1990년 기준)은 미국 전체인구의 가구소득(\$35,225)이나 백인가구소득(\$37,152)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인도인에 비교해서도 한인은 가구소득에서 낮고 빈곤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윤인진·임창규, 2008), 상당수의 재미한인교포들이 경제적인 문제⁵⁾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이 세탁소를 하는데 게으르고 술 중독자여서 생활능력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붙어 있는데 술만 먹고 일도 안하고...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어요.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13살 때. 참다 참다가 그 계기로 아마 전남편이랑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참 힘들었는데 지금 남편 만나가지고 괜찮아요”(사례 1).

“전처는 돈 못 번다고 나에게 성격적으로 잦은 무시와 비난을 자주 해왔고 부부싸움도 잦았지요”(사례 5).

(2) 외도

외도를 이혼의 원인으로 보는 데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도의 경우 이미 악화된 부부관계의 징후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며(홍영택, 2006), 외도로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도 많아 혼외관계가 곧 결혼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는 것이다(정혜정·김범수, 2009). 그러나 이들 부부의 다수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라도 가족해체의 위험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교포사회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인교포들이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이혼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신혜섭, 1996; 정정숙, 2009; Kim and Sung, 2000) 부부갈등과 이혼사유로 외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사례2, 사례 4, 사례8, 사례 9)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거리낄 것이 없어서 한국과는 다르게 이혼결정이 좀 더 수월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5)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첫째, 영세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둘째, 한인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력과 직업경험을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Yu, Choe, and Han, 2002). 따라서 재미한인교포의 경우 언어문제와 교육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이민 전보다 불리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하락을 겪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제력보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망가져서 다른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아이들을 내가 키우는 것으로 하고 이혼했지요”(사례 4).

(3) 음주와 가정폭력

사례 9의 전 남편 역시 한인교포인데, 한인교포의 경우 음주는 현실 도피적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신혜섭, 1995). 이러한 음주문제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정폭력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이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게 술마시고...처음에 사귄 때는 몰랐지요. 술 좋아하고 드링크 할 때 화내는 것, 그러니까 겁이 나서 살았어요. 내가 스케어리(scary)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기가 싫더라고. 한번 술 마시고 취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의자를 던진 거예요. 나 이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겁나는게 남자들은 술 마시면 건드리지 말라는거...그거를 배웠어요. 그 겁 때문에 살기 싫어가지고”(사례 9)

2) 재혼: 새로운 삶의 선택

사람들이 재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Collins(1991)의 표현에 의하면 ‘재혼은 마치 프라이팬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사람들은 재혼을 선택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재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혼이 이혼한 사람들의 긍정적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혜, 1994). 이러한 긍정적 적응요인 중 하나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이다(Thabes, 1997). 이는 이혼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외로움, 고독감, 정서적 애정 결핍 등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안정 및 성적인 것에 더하여 심각한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별 후 재혼과 달리 이혼 후 재혼은 이혼의 귀책사유를 떠나 이혼한 자에 대한 주위의 냉랭한 시선이나 편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재혼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사례 2나 사례 4처럼 초혼보다 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재혼에 이르렀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어린 나이에 배우자에 대한 연애감정 없이 중매나 소개로 만나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 후 재혼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낭만적 감정이나 친밀감을 느꼈고 자신을 평생 아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도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1의 경우는 재혼사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는 사실 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혼 후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거나 수입이 감소되는 타격을 입게 되므로(Hoffman and Duncan, 1988), 재혼에 대한 경제적 동기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새삼 알 수 있게 한다.

(1) 외로워서

“미국에서는 생활이 단조로워요. 갈 곳도 없고...이혼을 하고 나니까 외롭고 시간이 많아서 친구와 노래방에 놀러 갔죠. 한번 두 번 노래방에 가니까 그 주인이 나를 좋게 봤어요. 노래방 주인이 40세 후배가 싱글이니까 자기 후배를 소개 해 준거죠. 저하고 다섯 살 차이예요. 지금 남편은 61년생. 연하지요. 그 사람도 나이가 있고 나도 나이가 있어서 급속도로 빨리...얼마동안 연애기간이 있었지만 나이가 있어서 바로 재혼, 45세, 40세 정도에 재혼했어요. 내가 애가 있어서 더 진지했어야 했는데... 그쪽에서 더 서둘렀어요”(사례 3).

“재혼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내 자신의 감정적 외로움과 내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재혼 전에는 늘 나 혼자였어요. 그게 참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세상적인 쾌락은 즐기지 않았지만 신앙의 힘으로 내 자신의 욕구들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정말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자녀에 대한 그리고 장래의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다는 점이 참으로 힘들었어요”(사례 5).

(2) 정서적, 낭만적 감정의 추구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도 애기 낳기 전에 헤어져라. 헤어져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 둘을 낳았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항상 그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 만나서 폭 빠졌어요. 책임감도 있고 잘 챙겨주고... 전 남편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되니까. 고민도 안하고 금방 결혼했지요”(사례 2).

(3) 경제적 어려움

“우리 애가 막 중학교 갔는데 안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때 나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났어요”(사례 9).

(4) 주위의 시선

“이혼하고 혼자 3년 넘게 있으니까 친구들이 혼자 있으면 안된다고 (남자를) 소개도 해주고...외롭기도 하고요. 뭐든지 혼자 결정하고 할라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주위에서도 (혼자 산다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사례 8)

3) 재혼생활의 갈등상황

결혼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신성한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사회에서는 입국이나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 상업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즉, 소위 그린 카드(green card)라고 하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 일부 존재하며 이것이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가족체계를 부추긴다. 재미한인교포사회에서도 영주권을 얻기 위한 계약결혼이 은밀히 진

행되는 일이 있다 보니 결혼도 일종의 상업적 계약이고 비즈니스화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교포사회의 분위기에서 영주권자인 사례1의 경우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와 갈등과 불신 속에서 살았던 2년간의 힘든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위장결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례 5의 경우처럼 재혼은 초혼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재혼부부에게는 부부운명공동체라는 유대의식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김연옥, 2007)와 일치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혼가족에서 두 배우자의 논쟁은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이는 양육 상의 문제와 계부모역할 수행문제 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이 재혼 부부관계의 친밀감보다 더 오래 동안 유지되어 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역기능 즉, 충성심 갈등이나 삼각관계 등이 재혼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1)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나 감정적 갈등

“친구가 말렸죠, 너 미친년이다. 재혼할 때 그 사람 너 사랑해서 재혼하는 것 아니다. 그 남자 너를 버리고 갈 거야. 어떤 사람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가짜로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18세 돼서 시민권 따서... 그러면 자동으로 자식들이 가니까 전부인 쪽으로 남편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말렸죠, 저는 살면서 의심했죠, 결혼하고 살면서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쩌면 영주권 나오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도 영주권 받기 전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저를 바더(bother)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2년 걸렸어요, 좋아하기도 하면서 의심도 가는 시기였고, 그런데 우리는 천생연분인지 영주권 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사례 1).

“현재의 재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참고 양보하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갈등 후에 느끼는 기분은 분노심이 많이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혼 때는 부부 싸움을 해도 앙금이 남지는 않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이혼남이라는 말 다시 듣기 싫어서 참고 산다고 할까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다툼이나 갈등 후에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서 양보가 없어요”(사례 5).

(2) 불명료한 가족경계와 친밀감 부족

재혼할 당시 재혼자들은 새 자녀의 존재가 재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혼가족구성원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호칭을 정하는 과정, 서로 친밀감을 나누다거나 배려하면서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사귀다가 식 올리고 한 집에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줌마, 이줌마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니? 학교 같은데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엄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애는 잘 설득을 했는데 13살 먹은 막내가 힘들었어요, 교회건 밖이건, 어디건 무조건 이줌마라고 불리서”(사례 1).

“지금도 여전히 애들이 새 엄마와 친밀감을 나누거나, 감정의 표현을 하거나, 부탁을 못하는 것 같

“아요, 나 역시도 아내의 자녀들과 내 친자식들처럼 돌보는 것에는 어색함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아빠’라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사례 5).

(3) 삼각관계

한부모가족 시기부터 함께 살아온 부모·자녀관계는 유대감이 강하고 매우 밀착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혼가족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하게 되면서 새 배우자와 가까워져서 자신들에게 할애하는 시간, 관심, 보살핌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면서 충성심 갈등과 상실감을 포함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부모를 외부인(부모의 배우자이자 자신에게는 새부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서적 역기능이 삼각관계로 나타나게 된다(Banker, Gaertner, Dovidio, Houlette, Johnson and Riek, 2004).

“아이가 지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지 않나. 우리 부부가 어디 간다고 하면 시무룩하고... 애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짜증내고 그렇게 질투를 해요”(사례 6).

(4) 충성심 갈등

“친엄마가 다른 도시 어디에 산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엄마가 아프테요. 애들에게 친엄마는 일종의 동정심도 사고... 그래서 아이들 생각에 엄마가 아프다는데 아빠는 새엄마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보이니까 개네들 눈에는 내가 더 미웠나봐요”(사례 1).

“재혼 당시 아이들의 반응은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표면적으로는 내 재혼에 대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 엄마를 맞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같아요. 특히 엄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한 어머니 개념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지요”(사례 5).

(5) 새부모로서 권위, 권한의 부재

새엄마들은 엄마로서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계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새엄마가 새 자녀의 훈육에 적극적이고자 하지만 실제 재혼생활에서는 그 결과가 친자녀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친자녀를 훈육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 자녀와의 경우에는 재혼배우자의 냉담한 반응이 오히려 새엄마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사례 1은 친엄마처럼 새 자녀를 대하고자 했지만 육만 얻어먹었고 더군다나 남편이 새 자녀 앞에서 새엄마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아 가출까지 했던 경우이다.

“어느 날 아이(계자녀)가 운동화를 새로 샀길래 ‘아빠가 운동화 사주었으면 티(셔츠)도 사달라고 하지’했더니 아빠가 돈이 없을까봐 그랬테요. 그래서 내가 ‘너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xx년’이라고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엄마한테 아들 보는데서 ‘엄마한테 잘못 했다고 그래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내가 일 갔다가 왔는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꼴 못 본다'하고 나는 집 나가서 한국 언니네로 가버렸지. 우리 큰 언니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 하더라구"(사례 1).

(6) 교포사회의 편견

국내의 경우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및 재혼유형의 증가, 가족법 제정 등으로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으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초혼핵가족 중심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재혼가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스스로 드러내길 꺼린다(김효순, 2007). 이는 교포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혼가족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가족은 몇 안 되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혼부부는 재혼사실을 숨기거나 일부러 알리지 않는다가나 교회에서 재혼사실 유포로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와서 마음을 터놓고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재혼한 사람들이 저는 다 오픈하니까 시카고 와서 가장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열고 재혼을 했다 오픈을 했어요. 좋았을 때는 괜찮았다가 저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다니면서 누구 권사는 재혼했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걸 다 그러고 다녀서...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사례 4).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식구들 모일 때 아이들하고 셋이만 모이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자유롭고 편한데 주위에서 주는 시선이 불쌍하고 그렇게 볼 때에. 무슨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아이들하고 이미 행복한데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8).

4) 대처 자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대처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가족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 가족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원의 안녕과 가족체계가 위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떠한 대처자원을 형성하느냐가 가족관계에서는 중요할 것이다. 재혼한 한인교포는 재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 및 연대, 종교생활을 언급하였다.

(1) 남편에 대한 신뢰, 연대, 배우자 지지

사례 1과 사례 5를 살펴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의 갈등상황을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하위체계라는 Visher와 Visher(1983)의 지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재혼부부간의 지지와 유대는 재혼생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처자원이 되는 것이다. Visher와 Visher(1983)는 재혼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관계상의 과업을 언급하였는데 가족기능 유지를 위한 부부관계의 강화와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과업이다.

“지금 저희 남편 역할이 크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남편 역할이 크지 않을까. 항상 큰애(배우자의 전혼자녀) 문제 일어났을 때도..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남편이 너는 내 뺨 믿고 큰 소리 뽀뽀 쳐라. 그걸 못하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자가 내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중간에 서서 많이 보듬어주고 내가 힘들어했을 때...또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큰 소리 나서 싸울 때 인상 뽀뽀 쓰고 그래도 남편이 중립을 지켜주고”(사례 1).

“재혼의 긍정적 측면은 아내와 이혼 한 후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과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삶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내 외로움을 새로운 아내가 충족시켜 줌으로써 생의 활력이 만들어지고, 살면서 믿음도 생기고... 늙어서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생각하게 되고”(사례 5).

(2) 종교생활

한인 교포의 약 70%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는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인이 서로 교분을 갖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지역사회센터이기도 하다(신혜섭, 1995). 이와 같이 한인교회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가족문제들을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교민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 3, 사례 9).

“지금은 신앙의, 하느님의 힘이예요. 속상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부부가 새벽기도를 나가게고... 그런게 동반자예요”(사례 4).

5) 안정화단계

재혼한 한인교포가족이 새로이 형성된 재혼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새엄마·새아빠 역할 모델 되기, 가족에 의식공유라는 범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례 3, 사례 5, 사례 6과 사례 7의 경우를 통해 재혼가족이 재혼생활에 따르는 여러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혼생활로 접어드는 것은 재혼가족이 단합된 한 가족(we-ness) 의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족애(we-ness) 의식의 공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주어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외식을 하거나 교회에 함께 나갈 수 있어 좋아요”(사례 5).

“양쪽의 가정이 한 재혼 가정이 되기 위해 사용된 시간은 오히려 재혼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초기 재혼의 시간을 지나서 약 4년 이상 지나고 최근에서부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 같기 때문이죠. 다투고, 감정이 노출되고, 성격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서 재혼의 과정과 새로운 부부생활, 새로운 자녀와의 관계 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사례 6).

“집안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고 그래서 생활이 더 안정이 되니까 좋습니다”(사례 9).

(2) 새엄마, 새아빠라는 역할 모델 되기

“그 전에도 후회한 건 아니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경제적인 기반도 잡히고 내가 참 남편을 잘 만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남편이 속 썩일 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엄마의 정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내가 헤어지면 내가 여기서 끝을 낸다면 저 아이들한테 뭐가 되나. 남들은 헤어지는 마당에 그 쪽 자식까지 생각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엄마라는 좋은 측면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첫째 자기 친엄마도 그랬고 (그렇게 떠났고)... 만일 내가 또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희생하기로 한 것. 좋은 엄마가 되어 주자”(사례 1).

“친아빠의 관계가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색으로 하면 회색빛 속에서 살았어요. 아빠라는 존재를 많이 그리워하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새 아빠를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빨리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고등학교면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빨리 불렀어요. 전혀 거부반응도 없었고 아빠라고 부르라는 애기도 없었는데. 지금 남편이 아빠 역할을 해주었다는 게 재혼의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사례 4).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자녀가 있는 미국 내 한인교포 재혼자들의 이혼과 재혼과정 및 재혼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그 실태를 이해하는데 있었다. 재미한인교포 재혼자들의 재혼생활실태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모두 18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으며, 이혼사유, 재혼: 새로운 삶의 선택, 재혼생활의 갈등 상황, 대처자원, 재혼생활의 안정화단계 등 5개의 핵심범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결과 재혼한 교포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혼 후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및 낭만적 감정의 발생 등으로 재혼을 하였으며, 재혼생활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초래되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부부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 및 종교생활을 바탕으로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한 가족 (we-ness)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인교포 재혼가족의 재혼경험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친밀한 부부유대를 바탕으로 새엄마, 새아빠라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며 “한 가족”되기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유자녀 재미한인 재혼교포들의 이혼 후 재혼생활 이해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한인재혼교포부부의 바람직한 부부관계 강화나 가족적응 촉진을 위한 재혼가족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 및 재이혼 예방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한인교포 재혼부부들은 새 자녀 양육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편견 등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혼생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재미한인교포의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한인교포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무능력, 외도, 음주문제 등이었으며 이는 재미한인교포 부부가 안고 있는 관계상 갈등과 맞물려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재미한인교포 부부 가운데 가정폭력, 이혼, 외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스 앤젤레스의 가정폭력문제는 아시아계 중 한인이 가장 심각하다(Kim et al., 2000).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외도를 비롯한 부부갈등 문제에 대한 상담 통로가 열려있어야 하겠다. 특히 한인교포가족의 경우 맞벌이 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한인재미교포들의 재혼사유를 살펴보면 낭만적 감정을 제외하고는 ‘외로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위의 시선에 떠밀려서’ 등이었다. 이러한 경우 재혼당사자들은 재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나 재혼가족관계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해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새 자녀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들과 함께 할 재혼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예측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 재혼 후 자녀와 계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런 갈등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면 ‘결코 재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을 싱글맘 아래에서라도 자유롭게 길렀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인터뷰 시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재혼생활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위해 재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 즉 이별이나 사별로 홀로 된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재혼준비교육과 재혼 할 대상이 있는 예비재혼가족교육으로 구분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새부모·새자녀 관계에서 새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상황이 최고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김효순, 2007; Felker-Thayer, Stoll, and Arnauttt, 2002; Dunn, O'Connor, and Cheng, 2005; Gosselin et al., 2007)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혼부부는 새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혼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기술이나 자녀양육에 효과적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재혼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새로운 가족경계를 설정하기, 스트레스 관리, 양육방식 및 의사소통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혼부부의 신뢰와 연대, 배우자 지지가 재혼생활상의 갈등요소를 완화시켜주고 재혼생활을 안정화시켜주는 대처자원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안정적인 재혼가족관계를 위해서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정현숙·전춘애·천혜정·유계숙, 2000; Visher and Visher, 1983; Golish,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각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력한 부부유대를 바탕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대응책이며 이렇게 되면 재혼가족원간 하위집단의 권력을 재분배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재혼가족원간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Visher and Visher, 1983; Golish, 2003). 따라서 한인교포 재혼부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개입전

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혼 가족 부부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포사회의 한인기관 등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미한인교포 재혼가족은 재혼가족의 구조와 관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가족체계의 위협성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 한 가족(we-ness)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한 재혼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한인교포들의 재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단체인 재혼가족협회(SA)가 결성되어 재혼가족 자조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재혼가족관계향상을 위한 부부관계강화,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Family Service Agency, Asian Human Services, 한인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상담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재미한인교포 재혼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인재혼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이외에도 재혼가족들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미교포사회에서 한인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이혼결정이나 가족갈등문제 해결에 목회자와의 면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한인교회는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제의 해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인교회를 통한 재혼가족교육이나 재혼가족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복지기관 사이에 전문적인 활동영역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인교포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이나 가족복지 서비스는 전문기관 통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혼가족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가족의 긍정적인 욕구를 소유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혼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적인 측면도 가진 가족유형임을 인정해주는 교포사회의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재미한인교포사회에 재혼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들을 없앨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혼이라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가족에 대해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인식 개선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포사회 차원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함께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재혼가족의 재해체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시카고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재혼기간이 2년 미만인 재혼가족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 초기 재혼가족의 갈등상황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재미한인교포 재혼가족의 재혼경험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사회 내에서도 한인교포들이 재혼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표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재혼가족 구성원들이 연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재혼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재혼생활에 대한 청소년자

녀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한인 교포 재혼자들의 결혼생활경험을 탐색 및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본 연구의 결과는 재혼가족을 위한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기. 2005. “재미한인 경제의 규모와 구조”. 『2003 한국학술진흥재단 중간보고서』. 전남대학교 사회교육원.
- 김연옥. 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99(2): 171-195.
- 김중숙 역. 2002. 재혼가족관계. L. H., Ganong and M. Coleman. 2000. *Stepfamily Relations*. 서울: 한국문화사.
- 김효순. 2006.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 13(2): 187-213.
- _____. 2007.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4): 65-85.
- 문애리. 1995. “재미교포 여성의 한국문화관과 통일 의식”. 여성학논집. 제12집. 147-153.
- 민병갑. 1991. 미국속의 한국인: 교포들의 이민생활 및 사회적응 분석. 유림문화사.
- 미주 YWCA. 2004. 전화상담자료집.
- 박종원. 2009. 『현장연구자를 위한 질적 데이터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NVivo 8 프로그램의 활용』. 서울: 형설출판사.
- 박태영. 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27-50.
- 신혜섭. 1995. “재미한인 가족의 적응과 생활”. 『가족학논총』 7집: 355-366. 옥선화. 2000. 재미동포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 로스엔젤레스 지역거주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 이명선. 2000. “컴퓨터를 이용한 질적자료분석”. 질적연구 1(1): 95-107.
- 이선미. 2006.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비교-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지역 한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 11-23.
- 이신영. 2002. “재미교포의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2. 4: 389-495
- 윤인진·임창규. 2008. “재미한인차세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위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409-438.
- 원영희. 2005. “재미교포노인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일립논총』 11: 151-178.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79-102.
- 정정숙. 2009. 재미교포의 결혼실태보고서. 가정사역 컨퍼런스.
- 정현숙·전춘애·천혜정·유계숙. 2000.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배경 및 이론적 기초. 한국가족관계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혜정·김범수. 2009. “남편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아내의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

- 학회지 28(3): 657-673.
- 한정애, 2006. “자녀를 둔 재미교포의 문화체험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미간행).
- 한경혜, 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 변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홍영택, 2006. “외도와 이혼”. 연세목회전문화 세미나 8: 41-53.
- Adler-Baeder, C. and Higginbotham, M. 2004. “How marital dissolution affects children: Variations by age and sex”.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40-549.
- Banker, B. S., Gaertner, S. L., Dovidio, J. F., Houlette, M., Johnson, K. M., and Riek, B. M. 2004. “Reducing stepfamily conflict: The importance of inclusive social identity”. In Bennett, M. & Sani, F.(Eds.).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lf*, Psychology Press, NY, 267-288.
- Berman, W. H.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post-divorce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96-503.
- Berry, J. W. 1998.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ray, J. and S. H. Berger. 1993. “Developmental issues in stepfamilies research project: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76-90.
- Bumpass, L. L., Sweet, J. A., and Castro, M. T. 1990. “Changing patterns of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747-756.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634-650.
- Cho, In-Ju. 2008. “Risk factors for husband-to wife psychological abuse in Korean Americ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8: 204-237.
- Coleman M., Ganong, L., and Fine, M. 2002.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88 - 1307.
- Collins, S. 1991. “The transition from lone parent family to stepfamily”. In M. Hardy & G. Crow(Eds.), *Lone parenthood: Coping with constrin and making opportunities in single-parent families*(pp. 156-174).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rosbie-Burnett, M. and Giles-Sims, J. 1994. “Adolescent adjustment and stepparenting styles”. *Family Relations* 43: 394-399.
- Dunn, J., O’ Connor, T. G. and Cheng, H. 2005.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between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ial fathers, and nonresidential stepfa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23-234.
- Felker-Thayer, J. A., Stoll, B. M., Arnaut, G. L., and Fromme, D. K. 2002. “A qualitative analysis of Stepfamilies: The Steppar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8(1/2): 177 - 189.
- Golish, T. D. 2003. “Stepfamily communication strengths: Understanding the ties that bin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1): 41-80.
- Gonzales, J. 2009. “Pre-family Counselling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0(2): 148-157.
- Gosselin, J. & David, H. 2007.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8(1/2): 29 - 53.

- Guba, E. G. and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Francisco: Jossey-Ball. 72-75.
- Hetherington, E. M., Cox, M., and Cox, R. 1985. "Long-term effect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9.
- Hoffman, S. D. and Duncan, G. J. 1988. "What ar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Demograph* 25: 641-645.
- Kim, M. T., Han, H. R., Shin, H. S., Kim, K. B., and Lee, H. B.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experience of immigrant populations: A study of Kore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5): 217-225.
- Kim, K. C. and Hurh, W. M. 1990. Social and occupational assimil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Sociologists* 3(2): 125-142.
- Kim, J. Y., and Sung, K. T. 2000. "Conjugal Violence in Korean American families: A residue of cultural tradi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4): 3231-345.
- Knaub, P. K., Hanna, S. L., and Stinnett, Nick. 1984. "Strength of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7(3): 54-62.
- Pasley, K., Koch, M. G., and Ihingrt-Tallman, M. 1993. "Problems in Remarriage: An Exploratory Story of Intact and Terminated Remarriag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0(1/2): 63-79.
- Redfield, R., Limton, R., and Herkovits, M., 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 49: 701-708.
- Rodgers, K. B.,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ce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1024-1038.
- Schulz, N. C., Schultz, C. L., and Olson, D. H. 1990. "Couple Strengths and Stressors in Complex and Simole Stepfamilies in Austrail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55-571.
- Stoll, B. L., Arnaut, G. L., Fromme, D. K., and Felker-Thayer, J. A., 2005. "Adolescents in stepfamilie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4(1/2): 177-189.
- Strauss, A.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Theory Procedures and Technoques*. Newbery Park, CA:Sage.
- Thabes, V. A. 1997. "Survey analysis of women' long trem, post divorce adjustm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3): 163-175.
- United States Bureau of the Census. 2000, 2007. *2005 special rept:Married couples and unmarried partner households*. Washington, DC:Arthor.
- Visher, E. and Visher, J. 1983. "Stepparenting:Blending family" in H. I. McCubbin and C. R. Figley.(Eds.),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Brunkerl Mazel.
- Yu, E., Choe, P., and Han, S. 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6: 24-40
- Ward, C, and Kenny, A. 1999. "The Mesurement of socioculture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Review* 23(4): 659-677.
- Weber, M.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T. Parsons, Ed.;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rans.). New York: The Free Press.
- www.kukinews.com, 2004.03.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marriage after Divorce -Focusing on Korean Immigrants with Adolescents at Home in Chicago Area-

Kim, Hyo-Soon

(Family Research Institute)

Um, Myung-Yong

(Sungkyunkwan University)

Park, Mi-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divorce and remarriage as well as the remarried life after divorce of Korean immigrants in Chicago area. Researchers interviewed in depth 9 remarried Korean immigrants with adolescent stepchildren: 7 women and 2 men. The qualitative interview script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by case study methods. The case analysis revealed 17 subcategories resulting in 5 core categories: reasons for divorce, remarriage as new choice of life, conflicts in remarried life, coping resources, and stable stage of remarried life. Based on these results, pos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the social workers working with remarried Korean immigrants.

Key words: remarriage, remarried life, qualitative case study, Korean immigrants

[논문 접수일: 09. 10. 25, 심사일: 09. 11. 02(11.26), 게재 확정일: 09. 12. 07]